

The Effects of Juvenile Delinquents' Self-esteem on their Sociality

Seong-Ok Kweon*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juvenile delinquents' self-esteem on their sociality.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f 549 secondary and tertiary students (534 males and 15 females) in delinquent reformatories in four major cities such as Seoul, Busan, Daegu and Daeje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self-esteem of juvenile delinquent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with leadership, autonomy and reliability. Moreover, their self-esteem at home also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utonom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 Keyword : juvenile delinquent, self-esteem, sociality

I . Introduction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도덕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해가는 중요한 시기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불균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며, 주변인(marginal person)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많고 부적응할 때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

이렇듯 청소년 시기에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청소년시기에 겪는 갈등과 욕구도 다양해지고 사회적 역할수행에 필요한 유예기간도 길어지게 된다[2]. 이때 정체감 형성에 대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로부터 도피하게 된다[3]. 이 외에도 사회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길 원하고 가족과 친구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즉 자신의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지속하면서 개별화 과정을 경험해 가는 것이다.

청소년시기에 또래 친구들로부터 충분한 심리적·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게 되고 사회적 배척의 감정을 갖게 된다[4].

최근 청소년의 일탈문제는 청소년 일탈정도가 다양화되고 저연령화, 집단화, 흉폭화, 무분별화, 범죄화 되어감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5].

청소년 일탈행동의 개념을 살펴보면 법규로부터 이탈하는 청소년의 행위와 비행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일탈행동을 반복하고 심리적, 교육적, 사회문화적으로 일탈행동의 여러 특성을 지닌 청소년을 가리킨다. 또한 정상적인 생활과 문화적으로 규범적인 행동양식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6,7].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 학교, 교사, 또래집단 그리고 대중매체 등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나타나며,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결코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가정불화와 부정적인 사회환경 등은 청소년들을 폭력과 비행에 쉽게 노출된다. 그리고 호기심과 충동이 비행으로 연결되면서 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청소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신뢰

• First Author: Seong-Ok Kweon, Corresponding Author: Seong-Ok Kweon
*Seong-Ok Kweon(Kso1255@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 Received: 2016. 12. 06, Revised: 2016. 12. 10, Accepted: 2016. 12. 12.

감과 융통적인 사고 및 창조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반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열등감과 패배의식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게 되고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즉 이는 타인과의 공동생활에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균형있게 잘 발달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성도 잘 발달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올바른 사회성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결손 가족과 빈곤가정의 자녀들에게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환경적인 요소와 가족관계, 가정 분위기, 가족의 역동, 의사소통과 같이 심리적인 문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8].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일탈행위의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 학교, 사회적인 부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관한 연구와[9,10].가족건강도와 일탈행동관계[11].인터넷 일탈행위의 예방[12].사이버 일탈에 미치는 영향 및 창의적 체현활동이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13,14]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수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청소년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비행청소년 또는 범죄소년의 인권보장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제도가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제도개혁을 모색하고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일탈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탈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장려하여 지원하고 청소년 지도에 도움을 주고 선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2.1 Self-esteem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적 변인으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각자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 판단, 태도, 감정 및 기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아개념(self-concept),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존경

(self-respect),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아평가(self-evaluation)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김애경(2003)은 자아존중감을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기 자신의 전반적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의 행동결정 변인이라고 정의하였으며[16]. 서영미(2004)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인간관계 및 학업 수행을 하고 있으며, 정적 상관이 있다고 정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무기력으로 인해 우울증, 부정적인 정서 상태, 과민성, 공격성, 충동성 및 소외감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정의하였다[17]. 노현숙(2002)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신체의 급속한 발달과 성적 기능의 성숙, 청소년 시기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고 정의하였다[18].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느끼는 일상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방식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박은숙(2007)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다[19].

김영숙(2002)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20]. 이복원(200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청소년 개개인의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1].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삶에 대한 주도권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긍정적인 자아를 소유한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진실하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평가는 개인의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2 Sociality

사회성은 출생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그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나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성을 사회성(sociality)이라고 한다[22]. 즉 사회성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할 때 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하며[23]. 서승덕(2002)은 인간은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 가치관, 지식 등을 습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정의하였다[24].

이계영(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이며,

심리적으로는 동정, 친애, 협동 등의 사회적 경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성 발달은 사회적 기대에 부합되도록 행동하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25].

한소희(2005)는 사회성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범주를 준수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 역할을 잘 해 내고 조직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고 다른 구성원을 존중하는 원만한 인간관계들이 유지될 때, 사회성이 발달된 사람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26].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의 하위요인으로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을 구성하였다.

첫째, 활동성은 일상생활에서 열정적이고, 생산적이며, 민첩하고, 부지런하며, 많은 일을 해내는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활발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척도의 점수가 낮을수록 비활동적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안정성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균형을 유지하며, 침착하고 마음의 동요가 적은 특징을 지닌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침착한 반면에 이 척도의 점수가 낮으면 인내심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 상태를 말한다.

셋째, 지배성은 집단생활에서 지휘·감독하는 지도자적 위치와 역할을 좋아하고, 자기주장과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척도가 높으면 집단적으로 활동할 때 자기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기편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높다. 척도의 점수가 낮을수록 수동적이고 의존적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교성은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며,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인간관계가 원만한 특징을 지닌 사람이며, 상대방의 입장과 사정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자율성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기의 독특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특성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성이란 인간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점차 폭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려는 성향이며, 다른 사람들과 사귀어 수 있는 개

체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III. Research design

3.1 Establishment of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일탈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인 사회 자아존중감, 가정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인 지도성, 자주성, 신뢰성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의 정도를 규명해 보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며, 실제자료를 통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을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7].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서 사회성을 설정하였다.

그림 1은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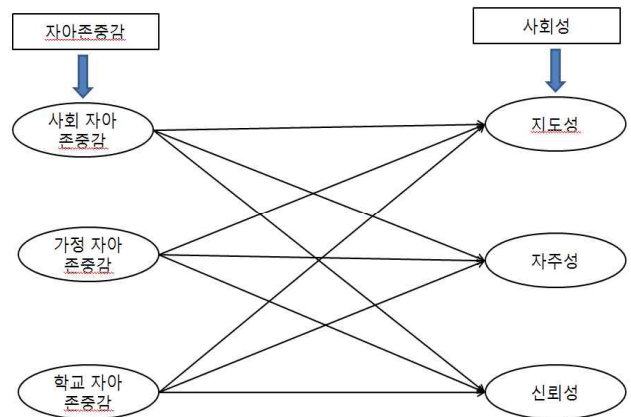


Fig.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인 사회 자아존중감, 가정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였고, 종속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구분	내 용
가설1	일탈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일탈청소년의 사회 자아존중감은 자주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일탈청소년의 사회 자아존중감은 신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일탈청소년의 가정 자아존중감은 지도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일탈청소년의 가정 자아존중감은 자주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일탈청소년의 가정 자아존중감은 신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일탈청소년의 학교 자아존중감은 지도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일탈청소년의 학교 자아존중감은 자주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일탈청소년의 학교 자아존중감은 신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변수로서 사회성인 지도성, 자주성, 신뢰성을 설정하였다.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3.2 Control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3.2.1. Self-Esteem

자아존중감에 문항은 26개 항목으로 3개의 요인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사회 자아존중감 9개, 가정 자아존중감 9개, 학교 자아존중감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로 측정하였는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와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최보가건귀연(1993)이 개발한 SEI(Self-Esteem Inventory)를 활용하였으며[28].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CSED): (Coopersmith, 1967, 1981)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하위척도 Cronbach's α = 사회자아존중감(.810), 가정 자아존중감(.776), 학교자아존중감(.621)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2.2. Sociality

본 연구에서는 이종승(1999)이 개발한 '최신 인성, 정서진단 검사' 중에서 이 연구의 주제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29].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와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지도성(.603), 신뢰성(.742)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정하였다. KMO (Kaiser-Meyer -Olkin): .868, χ^2 : 2990.329, df는 120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요인값은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의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속변수로서 사회성인 지도성 3개 설문항목, 자주성 3개 설문항목, 신뢰성으로 4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KMO (Kaiser-Meyer -Olkin): .780, χ^2 : 1468.516, df는 45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요인값은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의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1. 2 Reliability analysis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수인 사회 자아존중감 .845, 가정 자아존중감 .798, 학교 자아존중감 .677이며, 사회성의 하위변수인 지도성 .685, 자주성 .763, 신뢰성 .719로 모든 변수에서 Cronbach α 이 .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변수명	설문 항목수	Cronbah -Alpha	제거 문항	
독립 변수	사회 자아존중감	8	.845	없음
	가정 자아존중감	5	.798	없음
	학교 자아존중감	3	.677	없음
종속 변수	지도성	3	.685	없음
	자주성	3	.763	없음
	신뢰성	4	.719	없음

IV. Empirical Analysis

4. 1 Measurement tool verification

4. 1. 1 Validity analysis

독립변수(사회 자아존중감, 가정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3개의 요인과 종속변수(지도성, 자주성, 신뢰성) 3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였다. 독립변수인 일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 자아존중감 8개 설문항목, 가정 자아존중감 5개 설문항목, 학교 자아존중감 6개 설문항목을 설

4. 2 Research Model verification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자아존중감인 사회 자아존중감, 가정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로서 사회성인 지도성, 자주성,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해 보았다.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정책적·이론적 측면에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로서 도출된 전반적인 부합도 (Overall model fit) 지수를 표 3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카이제곱값 1146.531, 자유도(df) 287, χ^2 에 대한 p 값 0.000으로 나타났고, 다른 부합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Table 3. Fitness index of Model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A	RMR	NFI	RFI	IFI	TLI	CFI	AGFI
적합 지수	1146.531 (.000)	287	.902	.078	.047	.906	.903	.919	.910	.919	.805
최적 기준	-	-	.90 이상	.08 이하	.05 이하	.90이상			-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다.

4. 2. 1.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일탈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인 사회 자아존중감, 가정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인 지도성, 자주성,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 표 4와 같다.

첫째, 일탈청소년의 사회 자아존중감은 지도성, 자주성, 신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에서 3까지 검증결과 일탈청소년의 사회 자아존중감은 지도성(표준화계수 .496, $p = .000$)과 자주성(표준화계수 .727, $p = .000$) 및 신뢰성(표준화계수 .990, $p = .000$)에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탈청소년의 사회 자아존중감은 신뢰성에 매우 높은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일탈청소년의 가정 자아존중감은 지도성, 자주성, 신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에서 6까지 검증결과 일탈청소년의 가정 자아존중감은 자주성(표준화계수 .124, $p = .023$)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 자아존중감은 지도성(표준화계수 .052, $p = .504$)과 신뢰성(표준화계수 .097, $p = .055$)에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일탈청소년의 학교 자아존중감은 지도성, 자주성, 신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7에서 9까지 검증결과 일탈청소년의 학교 자아존중감은 지도성(표준화계수 .010, $p = .898$)과 자주성(표준화계수 .103, $p = .065$) 및 신뢰성(표준화계수 .048, $p = .348$)에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 일탈청소년의 사회 자아존중감은 지도성, 자주성, 신뢰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 자아존중감은 자주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탈청소년의 사회 자아존중감은 신뢰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V. Discussion and conclusion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탈청소년의 사회 자아존중감은 지도성(표준화계수 .496, $p = .000$)과 자주성(표준화계수 .727, $p = .000$) 및 신뢰성(표준화계수 .990, $p = .000$)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탈청소년의 사회 자아존중감은 신뢰성에 매우 높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일을 조직하고 결정해나가는 능력이나 집단을 이끌어 가는 의지가 뛰어난 지도성이 있는 사람이며, 매사에 목표의식과 결단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주성이 있으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하고 타인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진취적인 삶을 전개한다. 특히 신뢰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나타나는 것은 일탈을 경험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신뢰와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30]

둘째, 일탈청소년의 가정 자아존중감은 자주성(표준화계수 .124, $p = .023$)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인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발달과정에 따라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와 지지, 주변 환경의 변화, 학습의 확대, 역할의 변화, 신체외모와 신체 능력의 변화 등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격려와 칭찬 및 지지를 받고 자란 청소년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소년이 가정 안에서 존경받고 자신감이 높은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됨을 시사하는 연구결과이다[31]. 따라서 청소년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Table 4.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가	설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채택 여부
		비표준화 계 수	표준화 계 수				
1	사회 자아존중감 지도성	.501	.496	.098	5.097	.000	채택
2	사회 자아존중감 자주성	1.065	.727	.113	9.429	.000	채택
3	사회 자아존중감 신뢰성	1.241	.990	.114	10.844	.000	채택
4	가정 자아존중감 지도성	.051	.052	.076	.668	.504	기각
5	가정 자아존중감 자주성	.174	.124	.077	2.267	.023	채택
6	가정 자아존중감 신뢰성	.117	.097	.061	1.920	.055	기각
7	학교 자아존중감 지도성	.009	.010	.069	.129	.898	기각
8	학교 자아존중감 자주성	.128	.103	.070	1.842	.065	기각
9	학교 자아존중감 신뢰성	.051	.048	.055	.939	.348	기각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총체적인 방안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Yang, Seok-Ja. "The Effect Family Environment Factors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have on Deviant Behaviors of Teenagers"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2015.
- [2] Hong, Nam-Sun-Nam, Mi-Ae. Welfare for Teenagers. Community, 3rd Edition, 2011.
- [3] Lee, Nan-Young. "Psychological and Social Support for Non-Juvenile Delinquents and Juvenile Delinquents"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gki University, 2000.
- [4] Hong, Nam-Sun-Nam, Mi-Ae. Welfare for Teenagers. Yangseowon. 2000.
- [5] Lee, Sung-Eun. "Deviation of Korean Teenag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nguk University, 2007.
- [6] Lee, Sung-Eun. "Deviation of Korean Teenag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nguk University, 2007.
- [7] Yang, Seok-Ja. "The Effect Family Environment Factors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have on Deviant Behaviors of Teenagers"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2015.
- [8] Gwon, Hyok-Soon.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Health Degree and Deviation Perceived by Teenagers"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2004.
- [9] Lee, Sung-Eun. "Deviation of Korean Teenag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nguk University, 2007.
- [10] Hyon, Seung-Sook. "Deviant Behaviors of Korean Teenagers"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gju University. 2009.
- [11] Gwon, Hyok-Soon.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Health Degree and Deviation Perceived by Teenagers"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2004.
- [12] Lee, Ji-Hyon.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in Internet Networks"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ongsung University. 2005.
- [13] Lee, Hyon. "The Effect Parents' Fostering Behaviors have on Teenagers's Cyber Deviation"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nggyol University, 2013.
- [14] Ki, Nak-Hyon. "The Effect Creative Hand-On Programs have on Juvenile Delinquency"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Jungang University, 2012.
- [15] Kim, Bong-Soo-Gang, Dong-Wook. "Community Correction of Juvenile Offenders and Solutions" , Korea Society of Law and Politics, 2012.
- [16] Kim, Ae-Gyong. "The Effect Parents' Conflicts, Social Support and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have on Self-Esteem of Early Adolescents " ,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3.
- [17] Seo, Young-Mi.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 Peer Relationship and Self-Esteem Perceived by Children"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2004.
- [18] Noh, Hyon-Sook. "The 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Problematic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2002.
- [19] Park, Eun-Sook. "The Effect Internet Addiction has on Self-Esteem and Socia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ukmin University. 2007.
- [20] Kim, Young-Sook. "The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Type,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s"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ungsin University. 2001.
- [21] Lee, Bok-Won. "The Effect Attachment Factors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have on Career Maturity"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ukmyong Women's University. 2008.
- [22] Lee, Gyong-Hee and others. "Development of Group Counselling Programs on Sociality in High School Students" , Counselling Research, Vol. 13. No. 3. 2012.
- [23] Kim, Se-Bong. "The Effect Group Counselling Programs as Reality Therapy have on Leadership Skill, Sociality and Class Cohe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Venture Information University. 2009.
- [24] Seo, Seung-Duk. "The Effect Adaptive Activity Programs for Personality have on Development of Self-Esteem and Social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Gwangju University of Education. 2002.
- [25] Lee, Gye-Young. "The Effect Community Sports Activities of Adolescents have on Sociality"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2013.
- [26] Han, So-Hee. "The Factors that have Effects on

- Development of Sociality in Children”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unggyungwan University. 2005.
- [27] Bae, Byong-Ryol. Modelling of Structural Equation by Amos 19- Principles and Practice. Chongram Publishing. 2011.
- [28] Choi, Bo-Ga and Jeon, Gwi-Yeon. “Development of Self-Esteem Measures” ,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 PP.41-53, 1993.
- [29] Lee Jong-seung. Emotion and Personality Diagnostic Test, Hakjisa, Seoul. 1999.
- [30] Kang Dae-cheol. "Sports for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Self-esteem and Social Development Impact."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11.
- [31] Kim, Ki-Sook. “The Effects Self-Expression Training Programs have on Socia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gju University.2001

Authors



Seong-Ok Kweon received the PH.D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in 2005, Seong-Ok Kweonis a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Community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Practiceetc.